

'아그들과 무례질 하는' 엄마 잠녀

[제주잠녀] 3부-‘잠녀를 만나다’

추자도 추가 답사(4)-추자면 대서리 최소녀 할머니 1

등록 : 2010년 11월 17일 (수) 10:03:18

최종수정 : 2010년 11월 17일 (수) 10:03:18

고 미 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

▲ 추자항 전경. 최소녀 할머니는 일제시대 이 일대에 일본인 이주머흔이 형성됐었다고 기억했다.

섬 대물림 않으려 딸에 물질 가르치지 않아...사수도 미역 작업서 배운 물질로 한평생 '잠뱅이·적삼·족은눈·두리박' 섬 바다 눈 앞 선해, 세대 건너며 잊혀지는 것 안타까움

아직 세상을 모르던 열 일곱 섬 처녀는 미역을 조물러 사수도에 갔다가 물질을 배웠다. 동네에서 무례질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어머니는 딸에게는 무례질을 가르쳐주지 않았다. 그렇게 힘들 일 배우지 말고 섬을 떠나 살라고 바다로 따라 나서는 딸의 등판을 몇 번이고 떠밀었다. 어머니 눈을 피해 재미 삼아 시작한 무례질은 그대로 굴레가 됐다. 어머니의 걱정처럼 섬을 떠나지 못한 딸은 섬 바다를 온몸에 안은 채 세월을 입고 그대로 역사가 됐다.



#자식들하고 무례질 하는 섬

지난 13일 이른 아침 대서리 잠녀들이 채비가 한창이다. 금채기가 끝나 모처럼 바다 발을 해집는 재미가 쏠쏠하다. 어느 바다로 나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

한창인 조기잡이 배까지 떠나고 난 섬은 지루할 만큼 고요하다. 전날부터 몸이 좋지 않아 채비를 하지 않았던 최소녀 할머니(83·추자읍 대서리)가 힘들게 지난 기억을 끄집어낸다.

"하이고 나 고생 많이 했어. 시방... 눈물이 나와"

"뭐 기억이나 할랑가. 이 할매 신디 뭐 들을 거 있다고..."

▲ 최소녀 할머니

할머니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제주도도 전라도도 아닌 추자도 식 사투리다. 일제 식민지 시절 어업에 눈독을 들인 일본의 이주어

촌까지 있



▲ 최소녀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툇 작업을 하는 모습. 1960~70대 추정. 멀리 물질하는 잠녀의 모습도 보인다.

던 섬인 까닭에 일본어까지 묘하게 섞여 있다.

눈만 뜨면 앞에 바다가 있는 섬에서 당연하게 무례질을 배웠으리라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.

한 때 40여명이던 대서리 잠녀는 이제 16명 정도가 남았다. 그중 한 명이 바로 최 할머니다.

"이제사 할머니라고 부르지 얼마 전까지 아짐, 엄마하고 불렀제. 아그들하고 무례질을 하는데..."

할머니가 말하는 '아그'들은 이제 60살이 훨씬 넘는 잠녀들이다. 할머니는 "자식들하고 무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로"란다. 한 때 함께 무례질을 하던 또래 중 대부분이 죽고 없다.

"저그들은 우리 무례할 때 없었어. 우리 뒤에 뒤에 무례를 했제. 전에는 불턱에서 옷 갈아입고 추우면 이내 나와 뱀알도 구워 먹고 소라도 구워먹고 재미었제. 지금은 옷만 갈아입으면 바로 배타고 나가서 그냥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면 씻고 돌아가면 그만이지. 옛날이랑은 틀버(틀려)"

잠뱅이에 적삼을 입고 작업을 할 때, 잘해야 5kg도 못할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젊었고 사는 재미도 있었다. "지금은 그런 것들을 알기나 하나"



▲ 대서리 잠녀들이 작업을 하는 섬 중 하나인 수덕도

허기 채우던 '가사리'가 효자로

할머니의 기억은 슬쩍 1930년대로 간다. '일제 식민지'라는 말은 모를 어린 시절이지만 수수범벅에 삶아 넣어 버무려 먹던 (우뭇)가사리를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들이면 서 열심히 조물러 다니던 기억만큼은 분명하다.

그나마 가격을 잘 줘서 우뭇가사리를 한 번 팔고 나면 집에 '쌀'이 생

겼던 것도 어제일 같다.

대서리를 중심으로 이주어촌이 형성되면서 현대식 병원도 운영됐다고 했다. 할머니는 "지금 배가 들어오는 항, 추자수협 있는 데까지 다 일본인들이 살았었다"며 "그때는 의사도 여럿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아프면 본섬에 있는 병원까지 나가라고 한다"고 툭하니 말을 던졌다.

한창 때와 비교해서 몸 여기 저기 성한 곳이 없는 탓이다. 할머니는 "무례 나가면 느그 나이만 먹었다면 느근좁은 내가 이긴다고 말한다"고 했다. "지금은 눈도 어둡고, 잠뱅이만 입고 하도 추워 떨어져 이가 다 상했다"는 할머니는 당장에라도 두리박(올박·두룽박·테왁)을 챙기고 바다에 나설 기세다.

이제는 위(제주시)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형광색 테왁에 고무뿔을 입고, 엔진 소리가 시원한 배에 몸을 실지만 할머니의 바다는 아직도 20~30분이면 젖은 옷과 추위를 이기지 못해 몸을 말리고 '어겨씨나' 노를 저어 나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.

본섬과는 또 다른 가락이다.

"어겨씨나/어어가씨나/어기어차/잘도 간다/어서가자/여그는 썰물이다/여그는 밀물난다"

할머니로부터 몇 번이고 세대를 건너 원 세대들에서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가락이다. /▲특별취재반 =김대생 교육체육부장·고미 문화부장·해녀박물관